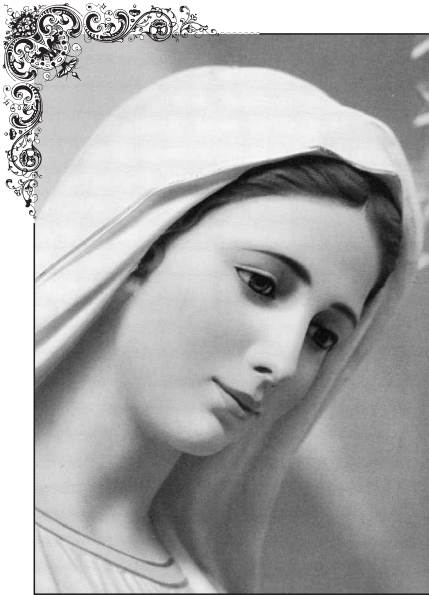


MEDUCORJE

평화의 모후

2015. SPRING 제 70 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는 오늘도 너희들이 기도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대로 살아가라고 부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이 미움과 불안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며,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구나. 오히려 매일매일 증오와 전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나의 어린 아이들아, 나는 너희가 열정을 새로이 하여, 다시 거룩함과 사랑의 길을 가도록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온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외면하며, 오직 인간적인 사랑만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자꾸나. 나의 어린 아이들아, 너희들의 마음 안에 미래를 향하여 보다 항상 더 나은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5년 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목차



1980년대 초, 호르헤 마리오 베르콜로 신부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성 베드로 암 페를라흐 성당에서 18세기 초에 그려진 요한 슈미트너의 '매듭을 푸는 마리아' 그림을 보고 감동하였다. 그는 이 작품의 복사본을 아르헨티나로 가져 갔다.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 시절에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매듭을 푸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300년 이상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지향과 삶의 매듭들이 풀리는 기적과 평화로움, 굳은 믿음 등을 체험 하였다고 한다. 교황께서는 지금도 집무실 뒤편에 이 성화를 모셔 놓고, 이 시대의 매듭을 푸시고자 성모님께 기도하신다.

-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4. 성모님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2
요조 죠브코 신부ofm
- 6. 대한난의 때
스테파노 곱비 신부
- 7. 상처 받은 교회를 치유하는 길 (3)
스테파노 곱비 신부
- 12. 내가 찾은 보물,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
가브리엘레 쿠비
- 15. 비오성인이 주신 거룩한 생활을 위한 다섯가지 생활규칙
성 파드레 비오 신부
- 16. 천국에 갔다 온 소년
콜튼 볼포
- 20. 천국에서 받은 치유
크리스탈 맥비
- 23. 성모님께서 천국과 연옥을 보여주신 이유
- 26. 영옥연혼들은 천국에 가기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있단다.
- 29. 메주고리에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락 은구엔
- 33. 나눔터 / 예수님께 치유시켜 달라고 말씀하세요
안드레아 드 루카
- 34.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명과 후원안내
- 35. 후원회원 명단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주님의 은총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주소서.
- 연옥 영혼들과 버림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태아들을 구하시고 그 부모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소서.
-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 가족들이 주님안에서 참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성모님,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믿고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도와 주소서.
- 저와 제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 주님, 누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성모님, 〇〇〇이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선교지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은총을 풍부한 열매맺게 하소서.
-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루 빨리 취직이 되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저희 본당 신부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불법체류자들의 고통을 보살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모님의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뜻을 따르도록 도와 주세요.
- 주님, 남편이 주님께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소서.
- 부모님이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갖고 선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봉헌 하오며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 〇〇〇 신부님의 사제직이 복원될 수 있도록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 물질 때문에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관계가 치유되도록 자비를 청합니다.
- 성모님, 알콜중독이 된 〇〇〇의 성격과 우울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
- 참된 회개의 은총으로 오랜시간 시달려온 죄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태아가 아무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부모에게도 성모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모든 선교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온 세상 모든 이가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 개신교에 다니는 어머니가 고백성사를 받고 다시 성모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 성모님, 도와주소서. 성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진정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 사랑하올 성모님, 하느님 뜻 안에서 저와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선종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 회개의 은총을 주시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은총과 축복을 받을수 있도록 하소서.
-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동생과 언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 자녀들을 보살 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청합니다.
-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〇〇〇 의 진실이 밝혀져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으니 하루빨리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합니다.
- 성모님, 모든 사제들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거룩한 사제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지난 몇년간 무너져 가는 가정의 경제난이 매일 아침 눈 뜨기가 두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해결되어 저를 믿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고통과 빛을 돌려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평화의 모후 사명과 성모님의 소식지가 지속적으로 발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모님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

요조 죠브코 신부 ofm

성모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목격증인 비스카가 일곱 번의 주모경 기도를 하자 "매일 그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메주고리예에서는 매일 미사가 끝나면 일곱 번의 주모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천상에서 오는 첫 번째 기도 단계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혼자하는 묵주기도가 아닌 가족과 함께 바치는 기도, 본당 안에서 함께 드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라." 기도를 거부하는 가정이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지만 사탄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기도회원들의 모임을 방해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도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힘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성모님보다 더 나은 기도의 스승은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과 은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한 책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라. 너희들은 가정 안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주고리에 마을의 모든 가정은 매일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로사리오 기도는 가족들을 하나로 일치시켜 줍니다. 독일에서 살던 젊은이가 메주고리예에 왔을 때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마음 아파하며 그리스도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체성사 속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전례에 참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서를 준다면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서 안에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빛과 은총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주고리에 저녁예절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묵주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대에 기도를 첫 자리에 두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십시오. 메주고리예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이렇게 일곱 번의 주모경과 로사리오 기도를 원하신 다음 요청하신 단식은 메주고리에 주민들에게는 매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은 "사탄

로사리오 기도는 가족들을 일치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표시이며,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의 밧줄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입니다.

은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더욱 극성을 피우고 있으니 단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 발현 초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만나는 TV프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스타르의 치 트룩 근처에 있는 마을 (대통령은 메주고리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음)의 본당 신부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인데 여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말을 들은 공산당 지도자들은 버스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단체로 출퇴근 시키며 메주고리를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메주고리에에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실을 신문 첫 면에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 날은 성모님께서 "단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신자들에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식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모든 신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단식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은총들을 내려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고해 성사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150여 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하루를 꼬박 새워야 했고 별판에서도 성사를 주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렇게 매달 고해성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부터 메주고리에에는 새로운 화해와 은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는 기도와 단식과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성모님 메시지의 참 뜻과 그 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희생도, 성체성사의 신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마음에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라는 성모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되어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교회가 살아있고 신비한 몸과 결합함으로써 성체성사를 생활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천 년 전부터 감실 안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흠송드리도록 우리를 감실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성체 안에서 하느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형상을 알아 봅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성체성사가 없으면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메주고리에에 온 것은 부르심입니다. 성모님은 그러한 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메주고리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만하고 겸손치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성모님 말씀을 회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로사리오 기도는 가족들을 일치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표시이며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의 밧줄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십 번씩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성모송 한 번을 바치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찼을 때 오십 번이 아니라 그 몇 배라도 더 반복해 성모송을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매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공기나 몸속에 흐르는 피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신자라는 것은 매우 험난한 삶을 의미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공산당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었지만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신론자였던 두 명의 경찰들이 회개했는데 그 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회개하기 전에 메주고리를 조사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놀라운 회개를 했습니다. 것처럼 오로지 은총 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갈멜 회원, 기도하는 프란치스코 회원,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둠이 더욱 짙어 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니느웨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다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묵주기도의 다섯 가지 신비가 바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M**

엠미르 출판사 발행 : 다섯개의 조약돌에서 / 구입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대환난의 때

437 / 90.11.15. 몰번(펜실베이니아주, 미국). '마리아사제운동'
미국 및 캐나다 주교 3명과 사제 25명과의 '다락방' 모임
형태의 영성수련 (피정)

스테파노 곱비 신부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지속 다락방' 형식의 이 영성수련 피정에 너희가 이리도 많이 모여 있음을 보며 느끼는 내 티없는 성심의 기쁨과 위로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주에서, 그리고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온 너희에게 말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바치는 기도 안에 모여 있다. '묵주기도' 전단을 합송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장엄하게 성체조배 시간을 가지고, 언제나 주교가 주례하는 거룩한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이 미사동안 내 '티없는 성심'에의 봉헌을 새로이 하면서 말이다. 너희는 또 철야 조배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더욱 열렬한 사랑과 보속을 바쳐 드리고자 했으니, 이는 참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일이며 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철야 조배는 예수님의 성체 성심께, 그분의 사제다우신 성심께, 큰 기쁨과 격려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대환난의 때가 이미 닥쳐왔음을 너희에게 알린다.

대환난이 너희 나라에 닥쳐왔다. 근심과 고통에 찬 엄마로서 나는 얼마나 여러 번, 회개의 길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내 자녀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던가! 하지만 내 말은 경청되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 하느님과 그분 사랑의 법을 배척하는 길을 걸어 왔다. 불순결에 의한 죄가 갈수록 확산되고, 부도덕이 모든 것을 삼키는 바닷물처럼 만연되고 있다. 자연을 거스르는 순결하지 못한 죄, 곧 동성연애가 정당화 되고 있고, 생명을 가로막는 수단들을 동원하는 일이 흔해졌으며, 너희 나라 어디서든지 낙태가 널리 저질러지고 있다. 무죄한 아기들을 살해하는 이 행위는 하느님 면전에서 복수를 외치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미 하느님의 정의와 큰 자비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약과 가난의 때를, 고통과 패배의 때를, 대징벌이 덮치는 정화의 때를 겪게 될 것이다.-- 대환난이 너희 교회에 닥쳐왔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오류들이 계속 확산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많은 목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도, 깨어있지도 않았기에,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마태 7,15)들이 수없이 양떼 사이에 들어와 무질서와 파괴를 일으키도록 허용한 셈이 되고 말았다. 오, '하느님의 성교회'의 목자들아, 너희의 책임이 얼마나 크지! 너희는 '교황'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교도권'을 거부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말 그대로의 교회분리가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니, 머지않아 공공연히 선언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앙에 충실히 남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내 티없는 성심의 정원에 모아 보호할 작정이다. -- 대환난이 온 인류에게 닥쳐왔다.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에 속하는 징벌이 바야흐로 덮치려고 한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위대한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었다. 너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가서 어디서든지 힘차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라. 세속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길을 걸으며 이 짙은 암흑의 시대에 땅을 비추어라. 너희의 믿음과 성덕과 사랑의 빛살로 세상을 비추어라. 너희는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자(*1요한 2,18 참조)의 세력과 용감히 투쟁하여 마침내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어 내어라. 나에게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나가거라. 기쁨과 큰 희망을 가지고 가거라. 나는 너희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낸다.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빛'을 보고 이 어머니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할 작정이다. 너희 모두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M**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년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하는 길 (3)

"어머니시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모시켜 주십시오."

스테파노 곱비 신부

1987년 9월 28일 부터 30일까지 인천 샬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있었던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의 강론

"1974년 로마에서 처음 다락방 모임을 가졌을 때 일입니다. 「사꼬레 꼬레」라는 살레시오 수도원 성당에 15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해서 오늘처럼 로사리오 15단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수도원 장상이 와서 뒷문을 열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과가 끝난 후, 그는 내게 와서 포옹하고 싶다고 하면서 어제 큰 기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여 명이 넘는 사제들에게 한번에 15단을 모두 바치게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느냐고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적을 해냈습니다. 성모님은 메시지에서 로사리오로서 우리 마음을 당신 마음에 묶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사리오가 내가 너희와 가장 가까이 할 수단이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뢰침"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악마와 대적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진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에는 순결이 나타나고 신앙 안에 굳건해지며 영혼이 정화되고 은총의 깊은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단계로서 성모님과 더불어 마음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머니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놓으십니다. 마리아의 성심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아주 귀한 진주처럼 보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 봅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겠습니까? 사랑의 순수함, 사랑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의 마음이라도 성모님 마음처럼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모님은 피조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성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더 위험한 사랑도 있습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여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간혹 인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자질구레한 사랑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스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사랑이 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사제들의 아름다움 자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소에 응답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큰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현존의 차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찾게 되고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니까? 성체 안이지요. 성모님은 우리를 바로 그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즉, 감실은 만남을 위한 약속장소이며 성체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체께 드리는 향수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던 다락방 모임때 누군가 "밤을 새워 성체조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낮에 기도를 잘했으면 밤에는 자자고 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다가 낮에 졸면 곤란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성 바오로가 한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내가 문을 열면 거기에는 내가 찾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설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먹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오락을 하게 되고, 잠을 잘 때도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서는 더 없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의 팔에 안겨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선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겠습니까? 이미 그것들은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지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예"하고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열려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양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셋째 단계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는 진실로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채워두고 싶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리아를 다시 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자비의 섭리는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표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모님께서 더욱 큰 어떤 현시를 보여주기 위한 표징입니다. 성모님이 행동하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온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붉은 용을 묶어 지옥에 처박아 두기 위해서 성모님은 행동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이 일을 당신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메시지 책에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 때가 되었으며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바로 성모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다음에는 이런 말이 계속됩니다.

"너희의 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싶고,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너희의 손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너희의 발로 내가 걷고 싶고, 너희의 몸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싶고, 너희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사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사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그 계획에 따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자가 될 때, 그것을 직접 체험할 때, 사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께 '저를 당신의 사제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요."

제 4 강론 : 곱비 신부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오늘은 마지막 목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친 목상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전개했습니다. 오늘날 성모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시는 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묵상에서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대한 봉헌에, 그리고 두 번째 묵상에서는 그 봉헌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살고 마리아께서 우리를 변모시키기를 바라며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여,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모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묵상에서는 성모 성심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모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나머지 우리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황님과 그리고 교황님과 일치해 계시는 주교님들과의 일치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들로 하여금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왜 교황님과과의 일치를 우리 성모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파티마 발현에서도 이미 교황님과 연관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현시 속에서 교황님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교황님이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방에서 교황님이 혼자서 울고 계셨는데 그 방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방으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모님

이 그 어린이들에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오늘날 교황님이 처해있는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사 2천 년간 이 세계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은 교황에 대한 도전이지요. 교황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서, 사제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주교님들에게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

로서는 가장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누군가 미국에는 3백여 종파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부자이지만 종파에서도 참 부자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3백여 종파는 만드실 뜻도 없으셨고 시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의 교회밖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사도 전승을 가진 교회, 바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세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 일치입니다. 예수께서 수난 전날 저녁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참조, 요한 17장) 그것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치가 견지되도록 돕기 위해 하나의 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일치 또는 단일성의 초석입니다. 교황님이 바로 베드로의 그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분이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예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사랑 안에 교회를 주재하시고 교회 일치의 토대가 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교들이 주교들에 대항하고, 추기경들이 추기경들과 서로 맞서고, 신부들이 신부들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느님의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부는 지옥은 존재하고 천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신부는 지옥은 없으며 천사들은 모두가 꾸며낸 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황님은 윤리적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독일 교구에서는 교황님의 "인간 생명에 관한 회칙"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교구에서는 주교님이 신자들에게 그 회칙을 지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양 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사제들이 일치요소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전체 교회 일치의 기초가 되는 그 주변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황이십니다. 교황님과 일치와 합일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교황의 처지는 사제들로부터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히 더군요. 연하의 신부님들이 연로하신 신부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같이 교황님께도 우리가 경의를 표하기를 성모님은 바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교황님과 일치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치해 있으면 그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도권을 듣고 그것을 널리 펴니다. 그리고 교황님과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도 "나는 교황과 일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순명의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우리가 순명의 덕을 실천해 갈 때 교회의 일치는 쇠신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교님과도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교님과 일치하는 문제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교님의 교황님과 일치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공의

회는 주교들의 공동선이라고 하고 주교들의 일체가 교황과 더불어 교황 아래에 위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교단은 교황과 같은 카리스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교님이 교황님 위에 앉고 싶어 한다면, 교황님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교님보다는 교황님을 따라야 합니다.

얼마 전 프레이토리코에 가서 그곳의 대주교님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었습니다만 성직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이 지금도 침묵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교단의 상당수의 주교님이 교리나 윤리의 문제에선 이미 교황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주교님이 교황님과 한편에 있을 때만 모임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라는 이 헌신적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주교들이 교황님과 보조를 함께 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언어를 쓰는 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언어, 복음의 언어, 진리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의 헌신은 신자들이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치와는 상반되는 가치를 제시하는 세계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위해서



로사리오는 악마와 대적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사제들에게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도록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목자의 어머니이시지요. 성모님은 목자들의 어머니로서 우리 곁에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불러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도와서 신자들이 그들이 받은 세례를 생활화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피하게 하시고 그들이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성체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제가 성모님께 응답할 때 신자들이 보이는 응답은 놀랍습니다. 열 명의 사제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천 명의 신자들이 따라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사제에게 또한 도움을 줍니다. 기도와 격려, 헌금으로 말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나오는 헌금도 또한 신자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가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양 떼들은 안 따라옵니다. 오히

려 뒤에서 목자를 밀어내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세워놓은 마리아의 계획은 순조롭게 달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쇠신되고 거룩한 성덕의 길로 나아가갈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잡다한 토론을 거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제들에 의해서 지도되는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 바오로가 예언한 그 시대입니다. 그는 복음 대신에 꾸며낸 이야기들을 선포할 때가 오히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복음을 멀리하고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로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성모님은 우리가 사제다운 사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성심의 힘을 믿는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티 없으신 당신의 성심입니다. 그 성심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모님의 성심이 우리를 변모시키도록 힘써주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덕에 이를 것이고 적지만 성스러운 사제들과 더불어 성모님은 교회를 쇠신시킬 것이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M**



지존하신 하느님의 감실 마리아님께 바치는 기도

지존하신 하느님의 감실이신 마리아님,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감실이 되는 신비를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은 당신 태중에서 자라고 계신 아기의 참된 감실이셨고 지금도 감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은 분, 생활한 성광이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이셨듯이 성체 안에 계시는 당신 아드님과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더 많은 영혼을 감실로 만들라"는 당신의 간청에 응답하려 하오나 당신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다운 힘을 보여 주소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어 은총을 이해하고 미사성제의 희생 안에서 성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낙인에 온전히 기뻐하게 해 주소서, 성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해 주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님, 저와 저에게 맡겨진 그들을 도와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라이놀다 마이 수녀 OSB-



내가 찾은 보물,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

가브리엘레 쿠비

뉴에이지에 열광하던 나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들 세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이 큰 소용돌이에 빠져서 결혼 18년 차에 우리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1966년 1월 1일부터 나는 미성년자인 아이들 세 명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젊은 여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와 나는 그때까지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대뜸 그랬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약속된 9일 기도서를 내게 내밀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매일 이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의 내 삶에서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난생처음 하나님을 인격화하고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위해 마련했던 그곳은 기도를 위한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신비주의 관련 서적들은 바구니에 가득 담겨 부처상과 함께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방황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물음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시지 않는데 나는 삶이라는 배에서 내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그 배의 밑바닥은 물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즉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톨릭교회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지옥의 세력이 지배할 수 없는, 큰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문을 열어 주신 분은 성모님이었습니다.

내가 찾은 보물,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

우리 집문을 두드려 기도서를 내밀었던 이웃 여자의 이름은 코르둘라(Kordula)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기도서에는 이런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저넉때까지 나는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성모상과 묵주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내가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기도한 날, 그 공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현존하셨

나의 첫 순례는 메주고리에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결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24시간을 거치면서 나는 쓰라린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코르돌라는 빛나는 눈으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고, 이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소경인 나에게 그것은 내가 꼭 붙들어야 하는 중대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비디오투를 모았고 거기에 관해 책을 한 권 써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관련 서적 번역자로 일하며 손잡았던 골드만 출판사는 내게 1년간의 생활비를 미리 내면서 저술을 부탁했는데, 성모님의 발현이 아니라 내가 가톨릭 신앙인으로 개종하게 된 동기와 가톨릭교회에서 발견한 보화들로 그 책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나의 첫 순례는 메주고리에(Medugorje)였습니다. 나는 이혼을 결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다시 유지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눈물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후회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충고백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여행을 혼자 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메주고리에 발현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단지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또 가톨릭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1977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에 나는 가톨릭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로써 나는 무엇이든 나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웠으며, 이것은 세상에서 나의 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길ियो,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평화를 가로막는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어떤 성인일지라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광채를 비추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걸음에서 마지막 걸음까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거룩함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부드럽고 가장 빛나는 일치의 체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체험은 나를 거룩한 미사로 이끌어 주었으며,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변화를 의심에 차서 관찰했던 나의 아이들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성당에 가세요. 그러면 다 잘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2천 년 역사를 지닌 교회 안의 보물들을 발견했지만 코르돌라는 그 보물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종교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는 그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성사에 깃든 치유 은총과 교계 조직에 대한 순명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코르돌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 사랑의 불을 퍼뜨리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려고 결심했으며 그것을 위한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으로 인해 오히려 그녀는 신앙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코르돌라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죽은 라자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것은 라자로가 회개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비유이며, 빵을 많게 한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빵을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그녀에게 사도들의 서간을 공부할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학 환경에서 신앙이 깊은 것은 웃음거리가 되고, 묵주기도와 성모 신심과 심지어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또는 성지 순례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교황을 비판하고 교계 조직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교수나 학생들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존경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고 사랑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는 풍조는 "밖"에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명백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제 독신제는 고루한 관습에 지나지 않으며, 여사제 제도는 이미 시기를 놓쳤으며, 혼전 순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동성애의 합법화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르돌라는 신앙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도는 메말랐고 피정은 명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톨릭의 범주에서 벗어났으며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이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나는 외쳤습니다. "멈춰요! 멈춰요!" 코르돌라와 달리 나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론들과 싸웠습니다. 나의 건강한 이성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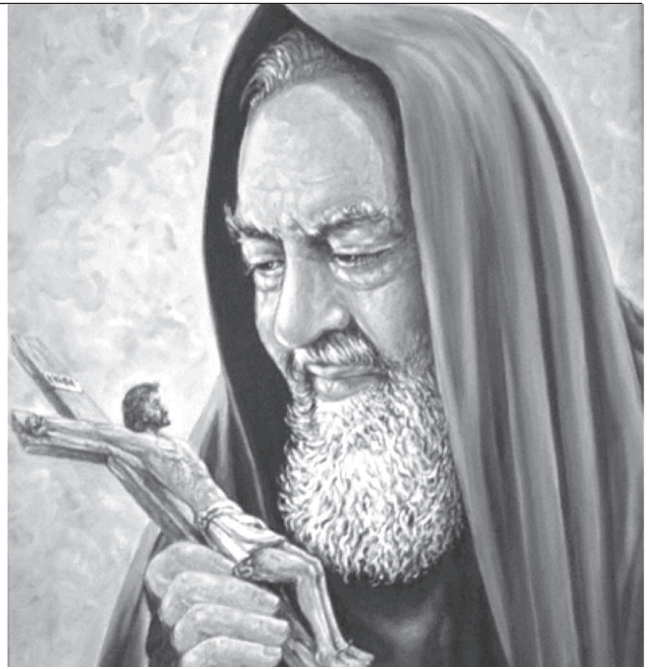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더 어렵다. 왜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면 복음사가들이 그렇게도 인상적으로 보고한 그분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사실이지 않겠는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굴욕적으로 실패한 순회 설교자에 지나지 않는 예수라는 인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가톨릭 신앙의 바다로 깊이 뛰어들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했으며, 그것은 내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나는 나의 지성에 결코 수면제를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문답,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현대 신학자들은 물론이요, 교부들과 성인들의 저서들 등으로 나의 지성을 자극해야 했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공부는 아니었지만 그런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내 신앙은 더 깊어졌고, 내 지성의 수평선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신앙과 이성, 이것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사도 20, 26-27)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1티모 4, 16).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를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전전한 가르침을 더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티모 4, 2-5)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때"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불변의 "현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바와는,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 상황 중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의 보물들을 함부로 내던지는 바람에 그 보물들은 광채를 잃어버렸으며 사회적인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저주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옥이 없고 마귀가 없으며 죄도 없다면 영적인 투쟁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승리자인지, 그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 거룩한 사제들을 찾아 나섭니다. 거룩한 사제는 사제로 서품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전권으로 하고 말합니다. **M**

(가브리엘레 쿠비의저서 '거룩한 사제가 되십시오' 에서)

비오성인이 주신 거룩한 생활을 위한 다섯가지 생활규칙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성인이나 신비가를 생각하면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신비가이자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피트렐시나의 비오 성인은 1968년에 돌아가셨다. 불과 46년 전이다. 이 성인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는 맞지 않았으므로 이성적인 세대는 비오 성인이 하는 일들이 거짓이 아닌지 증명하려 애를 썼다. 성인의 삶을 통해 일어났던 많은 기적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회의론이 난무했다. 비오 성인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당시엔 수많은 영혼의 영적 아버지로 잘 알려졌다. 그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고도 거룩한 상담을 해주었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비오 성인이 영적 자녀들에게 준 조언들을 근거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실행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매주 고백성사 : 고백성사는 영혼의 목욕과 같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고백성사를 보아야 한다. 나는 영혼들이 일주일 이상 고백성사를 보지 않은 채 있지 않길 바란다. 아무도 살지 않는 깨끗이 청소된 방에도 일주일 후에 가보면 털어내야 하는 먼지가 끼는 것과 같다.”


2. 매일 미사: 우리가 그러한 은총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죄를 짓고 성체에 다가가는 것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신다!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을 봉헌하고 사랑에 가득 차서 그분을 모셔야 한다.

3. 매일 저녁 성찰: 누군가 비오 성인에게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있으므로 저녁마다 의식을 성찰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비오 성인을 이렇게 답한다. "그것 또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의 경험이 많은 상인도 물건을 팔 때마다 손익을 따져 볼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앉아서 회계를 정산하며 그 다음 날 할 일을 결정한다. 그와 같이 매일 밤 간단히, 그러나 명확하게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는 것은 필요하다."

4. 매일 영적 (성서) 독서: 성서를 읽지 않는 영혼에게 보이는 부족함은 나를 오싹하게 한다. 영적 독서에는 세속적인 사람도 완전하게 나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어 줄 만큼 큰 힘이 있다.

5. 매일 두 번의 묵상 기도: 묵상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여겨져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분심이 많다고 용기를 잃지 마라.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묵상 시간을 정하고 그것이 십자가 일지라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지 마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묵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뭘 그리 걱정하는가. 묵상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묵상기도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 영혼을 다하여 하느님을 남김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면 묵상기도의 반을 이룬 것이다. **M**

Catholic Exchange에서 번역 Wisdom



천국에 갔다 온 소년

콜튼 볼포

베스트셀러 책에 있는 이야기다. "아이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아빠, 이 사람들이 날 못데리고 가게 해! 날 못데리고 가게 해!" 그리고 이 아이는 다음 세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하느님을 봤어요." '천국은 있어요'의 저자를 직접 만나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콜튼 볼포를 보면 그가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2003년에 그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타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체험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천국은 정말 있어요'를 통해 전하고 있다. "콜튼이 토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배탈인 줄 알고 의사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콜튼의 상태는 점점 위독해졌다. 의사가 그를 보았을 때 이미 그의 온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었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질문 : 콜튼 볼포는 이제 겨우 열세살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콜튼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졌다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약 십 년 전, 콜튼이 죽었다 살아난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타드 : 어떤 의사가 저에게 콜튼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소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명랑하게 잘 놀던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건...

타드 :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와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콜튼은 숨도 안쉬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수술 준비가 되고 의사들이 아이를 데려가자 콜튼은 "아빠, 이 사람들이 날 못데리고 가게 해줘, 못데리고 가게 해." 라며 소리쳤어요.

질문 : 그 당시 이야기를 볼포 가족에게 들어보기로 하죠. 타드(콜튼의 아버지), 소냐(콜튼의 어머니), 콜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튼, 정확하게 언제 네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니? 병원에서 아빠랑 헤어질 때였니?

콜튼 : 언제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저는 그저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 싫었어요."

질문 : 천사와 예수님이 와서 널 데리고 갔다고 했지? 그들이 수술실로 왔니?

콜튼 : 사실 예수님은 저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라 무서워 하나까 예수님이 저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질문 : 천사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지?

콜튼 :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 '예리고성'..을 불

예수님의 눈은 제가 다른데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렸어요. 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질문 :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던 노래를 천사들이 불렀단 말이지?

콜튼 : 네.

질문 : 굉장하구나! (웃음) 너의 그 천국 여정의 주제는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인것 같구나. 네가 그 다음 간 곳은 하느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곳은 어땠니?

콜튼 : 하느님은...그냥 거기에 계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빛을 발산하며 그곳에 존재하심 자체로 계셨어요... 그분은 매우 크셨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 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천국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일...?

질문 : (웃음) 표현이 참 좋구나...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 생각나지?

콜튼 : 글썄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있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질문 : 예수님의 눈이 어땠니?

콜튼 : 그분의 눈은 제가 다른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질문 : 무슨 뜻이지? 빛이 나온다는 거니?

콜튼 : 글썄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말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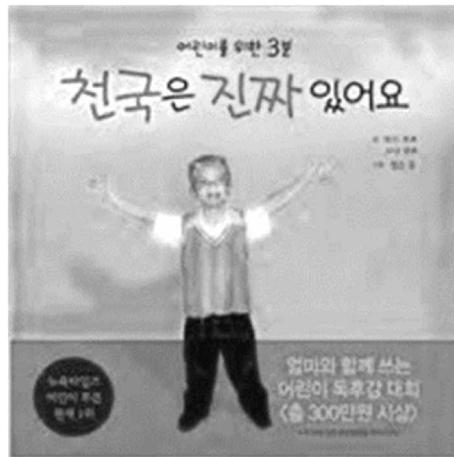
질문 : 네가 병원을 떠날 때 무엇을 보았지?

콜튼 : 천사중에 한 명이 저를 데리고 천국으로 날아 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다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질문 : 누구랑?

콜튼 :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수술실에서 돌아오길 기다리셨죠.

질문 : 소녀, 그때 아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했나요?



소녀 : 콜린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실에서 나올 때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질문 :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콜린을 데리고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소녀 : 너무 힘들었어요. 밝고 명랑하게

놀던 아이가 평소와는 달리 장난감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 아들을 본다는 건 엄마로서 매우 힘겨운 것이니까요. 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먼저 기도를 했어요.

질문 :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긴장감과 더불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수 많은 생각들로 멍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떠셨나요...

소녀 :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남편과 저는 아직 콜린이 죽은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했죠. 저는 목사님 가족들과 우리 가족 등,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긴급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여도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었고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 요청이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질문 : 타드, 당신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타드 : 절실했죠... 제가 목회자이지만, 남편이고 아빠인데 내 아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 등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콜린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저는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내렸죠.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도 갖고 있지 않았고 ... 저는 화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 왕이 아들의 생명을 놓고 간구하던 기도처럼... 내 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제 삶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중에 하나였습니다. 후에 콜린이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돌아 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물어 보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생애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그러한 위기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든지, 하느님에게로 달려가든지 두 가지 중 하나지요... 저는 단지 하느님께 달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 놓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질문 : 저도 딸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목회자로서가 아닌 단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기도를 하신거죠. 콜튼이 만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을 잠시 후에 들어 보겠습니다. 콜튼이 수술에서 깨어 났을 때, 아빠에게 거의 죽었다고 말했고 4개월 후, 콜튼은 아빠에게 자신이 본 천국을 말했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타드 : 그 일이 있던 후, 우리는 차를 타고 북쪽 플랫폼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까웠던 병원이 생각나서 다시 콜튼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죠. "콜튼 저 병원으로 다시 돌아 갈래? 콜튼이 "싫어. 대신 캐티를 보내요."라고 했어요 자기 누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 거기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줬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에 대해 별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성서나 종교교육 시간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에나 말할 정도 였지요. 그런데 콜튼이 천사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우리 주위를 집중시켰죠. 콜튼은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콜튼이 제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조차 그 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혼자 나왔고, 물건을 가지러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 갔을 때, 아내를 자기를 혼자 두고 사라졌다고, 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곤란했다고 하며 몹시 화를 냈어요. 나는 그 당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내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콜튼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병원에 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타드 : 일주일 후, 아내의 오빠 집에 놀러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콜튼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저는 몹시 궁금해서 조금씩 물어 봤어요. 콜튼은 때로는 말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싫어하는 전형적인 남자아이지요. 하루는 제가 "콜튼, 예수님을 봤다고 했지?" 하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콜튼은 "응"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에게 사촌이 있는거 알아?" 하고 말했더니 "응, 예수님한테 세례줬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는 표정으로) "그래?" "응, 예수님 그 사촌 내가 봤는데 굉장히 좋아" 내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이 있는거 알아?"... 그런식으로 조금씩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지? 그럼 천국에도 간거야?' 했더니 '응' 하고 대답하더군요.

질문 : 그렇게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씩 끌어 낸 것이군요.

타드 : 네.. 그리고 콜튼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 주었어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통해 배운 성서를 아이의 체험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질문 : 콜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야기 좀 해주렴.

콜튼 : 천국의 문앞에서 누나를 만났어요. 그 누나가 뛰어나와서 저를 껴안았죠. 그래서 제가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누나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 때 저는 껴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질문 : (웃음) 지금은 좋아하니?

콜튼 : 그때보다는 조금... 하지만 별로...

질문 : 누나인줄 어떻게 알았니?

콜튼 : 누나라고 말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몰랐거든요.

질문 : 또 누구를 만났니?

콜튼 : 증조 할아버지인 팝, 다윗왕, 삼손,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을 보았어요.

질문 : 와우.. 대단한 여행을 했구나. 얼마나 오래 거기 머

물렸니?

콜튼 : 글썄요... 얼마나 오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돌아왔을때 엄마 아빠가 3분이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질문 : 시간(개념)이 바뀐거구나. 병원에 있던 시간과 천국에 있던 시간이 다른거지?

콜튼 : (고개를 끄덕임)

질문 : 콜튼이 만난 누나가 누군가요?

소냐 : 캐티와 콜튼 중간에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것을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콜튼이 누나에 대해 이야기 해서 그 아이가 잘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치유가 됨을 느꼈어요.

질문 : 우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자연유산을 하신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콜튼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천국의 문앞에서 그가 뛰어나와 나를 껴안을 것을 생각하니 무척 고무적입니다.

질문 : 팝(중조 할아버지) 은 어떻게 생겼든?

콜튼 : 제가 본 중조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나 30대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그 나이정도로 보여요.

질문 : 그거 좋겠다.. (웃음)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곳에서 그 아이들은 자라니?

콜튼 : 네. 유산이나 어릴 적에 죽으면 천국에서도 성장해요. 하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아빠 : 저와 매우 가까웠던 할아버지는 6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콜튼이 본 모습하고는 달라서 알아보지 못했죠.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한장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콜튼에게 가족사진첩에 넣은 그 사진을 다른 사진속에 섞어서 보여주었죠. 콜튼은 그 사진들 속에서 망설임 없이 "아, 여기 팝이 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M**

Heaven is for real에서 번역 Wisdom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곳에서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오직 엄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미소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단다. 나의 순결함을 통해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희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내 아들 예수님께 봉헌하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되어 줄 것을 오랫동안 청하여 왔다.

희생과 실천과 사랑에서 우러 나오는 기도를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 스스로 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여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러나 기쁨과 기도로써 그것을 받아 들일 때 너희들이 천국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서 나의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고맙다.

2015년 2월 2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9분동안
천국에서

천국에서 받은 치유

크리스탈 맥비



죽은 후에 9분 동안 천국을 경험한 크리스탈 맥비는 자신이 결코 꿈을 꾸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가 깨어보니 죽은 자신이 천국에 있었다고 말한다. "저는 즉시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살면서 항상 달아나기만 하던 바로 그 하느님이셨습니다."

크리스탈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세 살 무렵부터 학대를 받으면서였다고 한다. "저는 학대를 받으며, 제 자신이 더럽고 엉망이고 역겹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여덟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학대받아온 수치심과 죄의식이 씻겨 나가길 바랐으나, 불행하게도 열두 살이 될 때까지 학대는 계속됐다. 크리스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존재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

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저를 구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 대부터 마약과 알코올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온 크리스탈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두 아이를 가진 이혼녀가 되었다. 그러나 28세 때, 남편 버질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쌍둥이를 낳고 비로소 삶의 안정을 찾았다. 결혼을 한 지 10개월 후인 2009년 12월, 그녀는 '췌장적체'라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인해 110도나 되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엄마 보니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크리스탈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부어 있었죠. 의사들은 내딸에게 페인펌프를 써야 했어요." 크리스탈이 말했다. "그 때 저 자신은 매우 침착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발치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했죠." 보니는 말했다. "딸아이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입술은 파래지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소리쳤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간호사는 저에게 병실에서 나가라고 말했지만 죽어가는 딸을 두고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

천국은 매우 평화로운 빛과 사랑에 잠겨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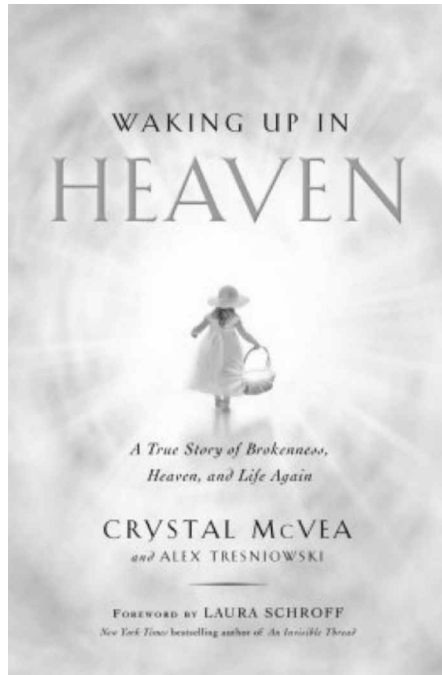
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크리스탈에게 9분 동안 소생술을 시도했지요."

급히 병원에 온 크리스탈의 남편 비질은 당시의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순간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스쳐 갔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나는 "의사들은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울부짖는 제가 그 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은 9분 동안 천국에 있었지만, 그때 제가 보낸 9분은 지옥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의료진들이 크리스탈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있었다고 말한다. "처음 의식을 찾았을 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여전히 저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전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죽었던, 바로 제 자신이었고 제가 죽었다는 사실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존재하는 저였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터널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어떤 강력한 빛이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영원을 향해 계속되는 그 빛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평화롭게 이 빛과 사랑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탈은 자신이 하느님의 현존하심 안에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름다운 빛 외에 다른 존재를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경이롭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등의 단어로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분을 충분히 볼 수 없었고 숨을 쉴 수도, 그 빛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온통 제 존재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하느님께 물어볼 것이 있었다고 한다. "왜 그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지, 왜 제 삶 안에서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향해 섰을 때, 저는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그분께 물었지요. "왜, 제가 당신을 위해 더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을까요?" 하느



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은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느님을 경배해 본 적이 없었으나 그때의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찬미 드릴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창조주 앞에서 "저는 '영원히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크리스탈은 하느님과 함께 천국의 문으로 향하는 터널에 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머리에 보넷을 쓰고 하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전 그 아이가 바구니를 위로 들고 그 안에 빛을 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아이는 마치 물을

퍼담는 것처럼 빛을 떠서 그 안에 쏟아 부었습니다. 바구니에서 그 빛이 폭포처럼 흘러나오자, 어린아이는 고개를 젓히며 웃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미소지며 움직일 때마다, 내 영혼은 사랑을 담은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크리스탈이 세 살 때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한다. 크리스탈은 "원수가 내 삶 안에 들어와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고, 망가지고, 역겨운 모든 것을 가졌을 뿐이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의 저를 보았어요. 세 살의 어린 아이는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버림받았다고, 그리고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요.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천국을 크리스탈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다. "마치 사슬에 묶여 있던 듯한 자신으로부터 하느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린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분께서 단순히 '크리스탈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 온몸으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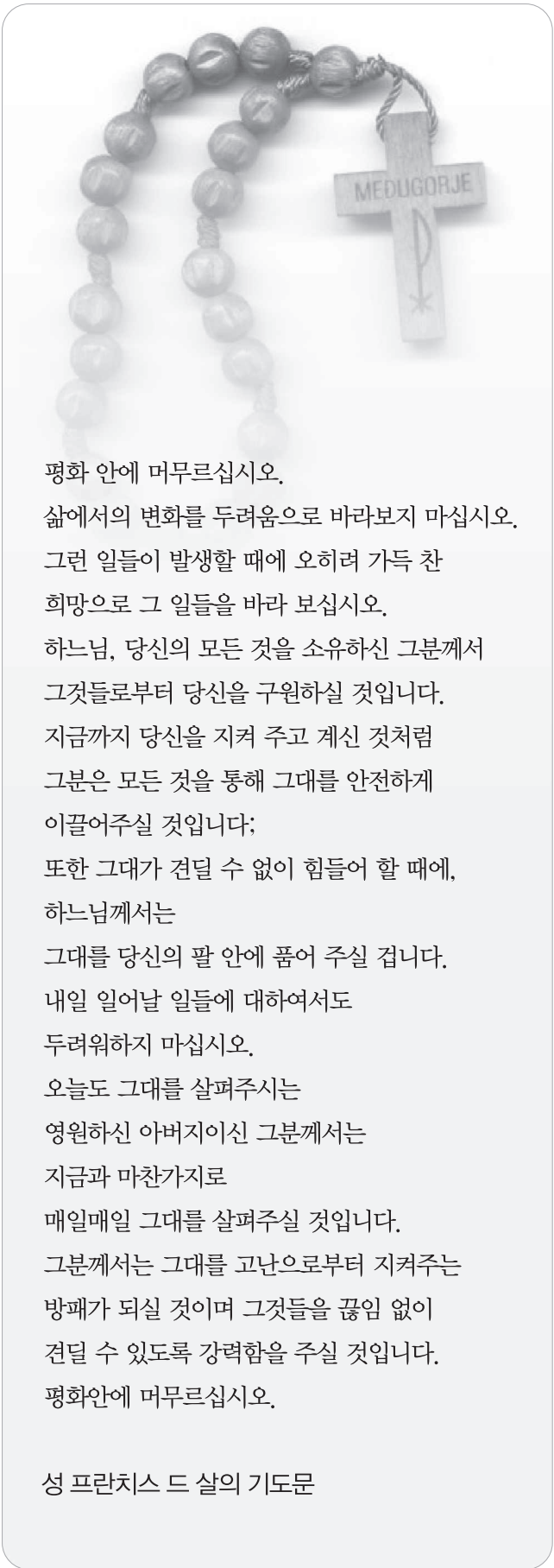


크리스탈은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크리스탈이 하느님께 "엄마에게 가서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될까요?" 라고 묻자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저는 그 빛을 등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네가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리쳐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터널의 바닥을 내려다보자 마치 수백만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빛나고 있는 듯한 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보자마자 저는 제 몸 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크리스탈은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깨어났다. "제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저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고, 가장 아름다운 빛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죠."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크리스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 면에서 이제는 그 병원에서 죽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된 크리스탈의 책, 「천국에서 눈을 뜨다」는 그녀가 본 천국의 여정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고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어서, 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주셨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M**

'Waking up in Heaven' 에서 번역 Wisdom



평화 안에 머무르십시오.
 삶에서의 변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오히려 가득 찬
 희망으로 그 일들을 바라 보십시오.
 하느님,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 주고 계신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통해 그대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견딜 수 없이 힘들어 할 때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대를 당신의 팔 안에 품어 주실 겁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대를 살피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대를 살피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실 것이며 그것들을 끊임 없이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함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안에 머무르십시오.

성 프란치스 드 살의 기도문



성모님께서 천국과 연옥을 보여주신 이유

- 메주교리에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연옥영혼들 -

메주교리에 목격증인들이 연옥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연옥영혼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다음은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연옥이다.



"성모님께서 특히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 비스카 -

비스카는 연옥을 체험하고 나서 몹시 힘들어했다.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연옥영혼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체험 이후 비스카는 성모님께 자신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여쭙어 보았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녀의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먼저 영적 지도신부였던 잔코 부발로 신부에게 가서 지향을 말하고 고백성사를 하라고 했다. 부발로 신부는 비스카에

게 연옥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할 힘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흘간 기도와 단식을 하라고 했다. 3일의 단식과 기도가 끝난 후, 비로소 부발로 신부는 비스카에게 고통받는 연옥 영혼을 위해 희생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것을 성모님께 말씀드리자, 곧 비스카는 뇌종양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시간 지속하는 고통에 코마 상태(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비스카는 고통받고 있는 연옥영혼들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보속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았으므로 이 병과 고통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엑스레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료검사 자료들은 그녀가 수술할 수 없다는 특별한 정황들이 나오므로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비스카는 병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번은 의사가 자그랩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목격증인인 야곱출로가 비스카가 병원에 가도록 말씀해주시길 청하자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1982년 11월 15일 월요일]

연옥영혼들이 받는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목격증인 비스카

야콥 : "성모님, 비스카가 처방을 받은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자그레브의 병원에 입원해야 할까요?"

성모님 : "비스카를 자그레브 병원에 보내거라."

비스카는 이에 대해서 성모님께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스카는 자그레브에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이는 치료할 수 없는 뇌종양에 관한 의학 자료들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이 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종양 제거 수술을 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비스카의 고통과 단식은 그녀를 몹시 쇠약하게 만들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어느날 연옥영혼을 위한 비스카의 고통이 치유될 날짜를 정해 주셨다. 비스카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정확하게 6개월 전이었다.

비스카의 연옥영혼 묘사를 읽으면 왜 그렇게 연옥영혼을 위해 무서운 고통을 감수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너무도 극심해서 성모님께서 40일 동안 고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은 비스카에게 더욱 어려운 고통이 따랐는데 성모님 발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서는 비스카의 심한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러나 40일 동안 비스카는 성모님 발현이 몹시 그리워서 그 고통을 다시 받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한다. 비스카는 연옥영혼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다.

"연옥은 잿빛의 끝이 없는 공간이고 매우 어두웠는데 사람들이 숨 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작지만 자발적인 보속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특별히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들이 받는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속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의 많은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용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연옥영혼이 천국으로 가장 많이 가는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미리아나 -

"연옥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더욱 많이 기도할수록 연옥에서 더 높은 단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지옥에 가깝고 가장 높은 단계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어느 단계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 영혼의 순결에 따라 다릅니다.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영혼은 기도는 조금밖에 할 수 없고 고통은 더 많습니다. 연옥의 높은 단계는 기도하기가 더 쉽고, 많이 기도하며 고통은 덜 받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은 여러 종류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는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연옥영혼이 천국으로 가장 많이 가는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연옥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시며 연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옥영혼들은 이 지상에서 보다 훨씬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며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주는 너그러운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죽은 영혼들은 이제 자유의지와 육체가 없으므로 그들이 지상에서 살면서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상하게 한 것들을 스스로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도와 단식, 보속 등으로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라고 청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성모님께서 천국과 연옥을
보여주신 이유**
-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지상에 살면서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자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 -

마리아 : 연옥은 매우 넓은 곳이며 희색 잿빛의 안개가 자욱한 어두침침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마치 깊은 구름에 잠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안갯속을 다니다가 서로 부딪힐 때 사람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살면서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으나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연옥에 갑니다. 이제는 연옥에서 하느님을 알며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연옥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얼마나 하느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얼마나 하느님을 무시하였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 큰 고통을 겪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하고 믿기도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이반 드라기체비치 -

천국, 지옥, 연옥의 체험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었던 이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모님께서서는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하고 믿기도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기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연옥 영혼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욱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 야콥 촐로 -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데려가신 것은, 하느님께 끝까지 충실한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더 들려 줄 이야기가 없습니까?

야콥 : 제가 천국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외로워서 죽을 것입니다.

질문 : 야콥, 연옥에 가보았습니까?

야콥 : 성모님께서 비즈카와 저를 연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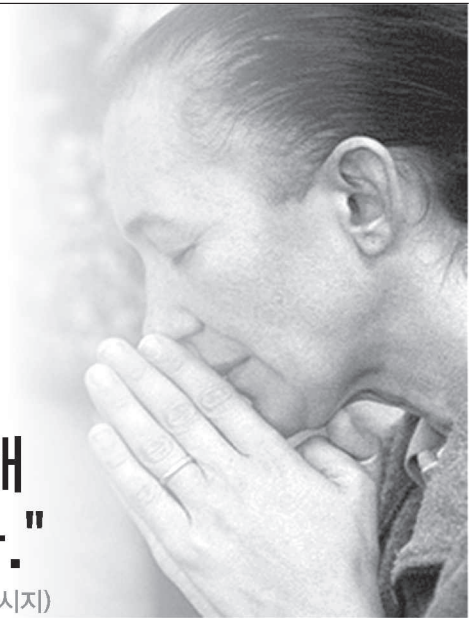
질문 : 지옥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까?

야콥 :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택하지만 그곳에서 겪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질문 :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콥 : 이 지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느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M**

<www.Medjugorje.com / www.qpmm.org 에서>



"연옥영혼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2014년 10월 3일 메주고리에 순례에서 목격증인 비스카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가 고아원을 방문한 순례객들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체험담을 마리아 TV 방송에서 방영했다. 비스카는 24분 동안 그녀의 체험담을 들려 준 후에 25분 동안 순례자들과 함께 침묵 중에 기도하였다. 그 아름다운 나눔을 현지 가이드 미키가 번역해주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순례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는 기도, 평화, 회개, 고백성사, 그리고 단식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한 모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물과 빵으로만 단식을 하라고 권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굳은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열고, 기도가 기쁨이 되어져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름다운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 집에 화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너희가 그 화분에 매일 물을 조금씩 준다면, 화초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예가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물을 주듯, 매일 마음안에 기도 몇 방울을 준

다면, 그 곳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꽃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곧 꽃은 시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되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어, 내일 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냅니다. 그러다보면 하루 이틀... 기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받게 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꽃이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읽거나, 쓰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매일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단식 : 성모님께서서는 아픈 사람들은 꼭 물과 빵으로 단식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두통이나 위병, 혹은 다른 핑계를 대며 단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단식을 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은 딱 한가지인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강한 의지(집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우리를 완전한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질병이 있는 순간에 너희 모두는 나와 예수님께서로 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룰 수 없다고...

너희들과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묵주기도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희생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던져 버리고 더는 죄를 짓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화와 사랑을 준다. 너희는 그것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가져가거라."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단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부모와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그러하단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탄은 너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사탄 : 성모님께서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와 평화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묵주입니다. 묵주기도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축성된 작은 성물을 지니고 있으라고 권하십니다. 작은 메달, 작은 십자가, 혹은 작은 성물은 무엇이라도 사탄을 더 잘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사 : 성모님께서는 거룩한 미사를 첫자리에 놓으라고 권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미사 중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핍계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성사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달에 한번 고백성사를 보라고 권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만 고백성사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사제들의 조언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백성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들 : 성모님께서는 세상의 젊은이들을 매우 염려하십니다. 이시대의 젊은이들은 매우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

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아, 오늘날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세상의 가치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사탄은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로운 순간을 이용하고 파멸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탄이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 눈에 띄게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화: 성모님께서는 지금이 큰 은총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평화를 가지고 온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서 : 바로 이 순간에도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향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 성서를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으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사제들을 위하여 : 성모님께서는 교황님과, 주교님들, 그리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청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 :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께서는 당신 계획 중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십니다. 특히 최근에 성모님께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며 염려하시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 말씀하실 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같은 지향을 위해 기도하도록 청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성모님을 도와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성모님께서 오실 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지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오후 5시 40분에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오후 5시 40분에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모님과 함께 : 여러분 대부분이 저와 야콥이 받은 아름다운 선물을 알고 계실겁니다. 발현초기 어느 날,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천국과 연옥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장소에 2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야콥의 집에 있을 때 성모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 야콥이 말했습니다."성모님, 비스카만 데려가세요. 비스카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외아들이에요." 야콥은 우리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때, 몇 시간이나 몇 날 동안 위와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제 오른손과 야콥의 왼손을 잡으시자 순식간에 지붕위가 열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 갔어요.

천국 : 실제로 몇 초만에 우리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광대한 공간이었는데 이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있었는데 모두 비슷했습니다.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았고 세 가지 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회색, 노란색, 그리고 장미빛... 그들은 모두들 걸어 다니거나, 노래 부르거나, 기도를 했고, 천사들이 그 위를 날아 다니고 있었지요. 성모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보아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옥 : 연옥은 광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짙은 안개 같은 것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신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지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단다."

지옥 : 지옥에서 제가 첫번째로 본 것은 거대한 불덩어리였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 안으로 깊이 들어 가면서 점점 더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심한 욕을 하며 하느님을 저주했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다. 지상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면서 지옥을 선택했으며

죽었을 때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옥의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삶에서 죽으면 모든것이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며, 이 지상의 삶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고 진정한 삶은 계속 된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을 앓고 있지요. 성모님이 오실 때,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항상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아픈이들이 십자가의 선물을 잘 견디고, 사랑으로 그 질병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침묵기도 : 이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침묵은 위대하고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성모님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은 너무 많이 하면서 기도는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말은 적게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침묵으로 기도중에 혹시 다른 사람이 소리치거나, 비명소리를 듣더라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침묵하면서 일치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주변에서 맴도는 사탄을 물리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 우리의 지향을 위한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으로 침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M**



메주고리에 열매



메주고리에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락은구엔

내 이름은 락 은구엔 (Loc Nguyen) 이며 현재 48살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사랑스런 딸과 아들 네 자녀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태어 났으며 지금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몰든에 살고 있는데 2010년 가을에 이주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과거 나의 좌우명은 "하느님이 나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을 구하자" 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성모님 발현도 믿지 않았기에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등의 성모님 발현들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은 나와 내 가족, 나의 조국, 그리고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태어난지 한 달만에 유아세례를 받은 구교신자이지만 7년 전 (2005) 나에게 신이 누구인가를 물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우 그룹 회장 김우중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김우중 회장은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김우중 회장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이었고 나에게 그가 쓴 책들은 곧 진리이고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내 신조는

"돈이 없으면 힘도 없고, 돈이 없으면 결정할 수 있는 목소리도 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다!" 였습니다. 돈은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문배달 소년이었지만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김우중회장은 내 인생의 본보기였습니다. 김우중회장은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에 나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당에 갔지만 나에게 미사는 한없이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관심도 없어서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이 쓴 책들은 어떡하든 구해서 모두 읽으며 탐독했습니다. 김우중회장은 내가 진심으로 숭배하는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예수님 보다 더한 능력자였고 진정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우그룹이 파산하고 김우중 회장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신이었고 우상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무너지다니... 내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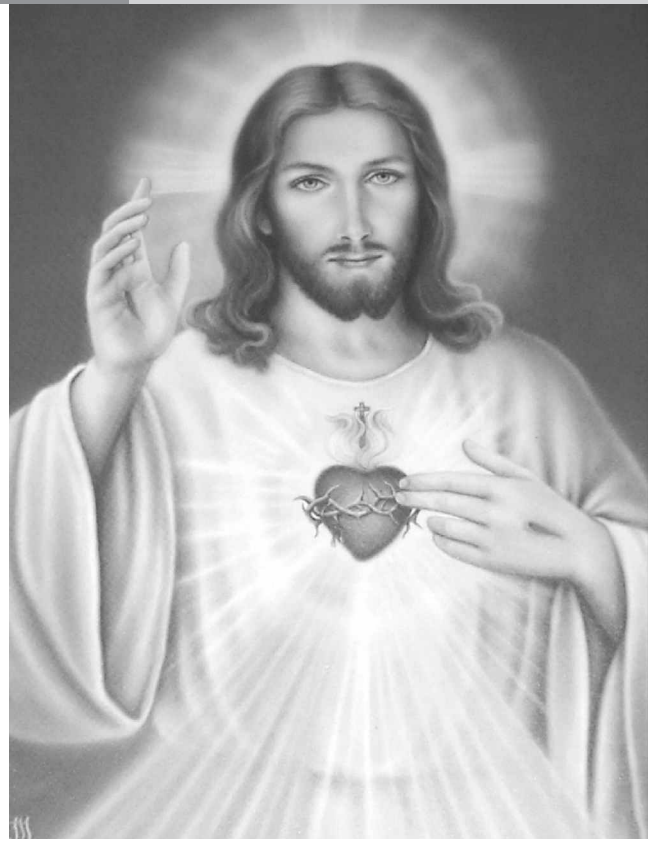
이 때 쯤 자폐증 증상이 있었던 내 아들의 증세가 몹시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데리고 수 많은 병원을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자비심의 기도전파

찾아 다녔지만 베트남 의사들은 모두 내 아들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자폐증이란 이상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물 속에 빠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혼란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메던 내 발길은 성당을 향했습니다. 고백성사를 하고 싶어서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난 내 죄를 고백할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여러해 동안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있다." 는 말에 특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실인 것처럼 성모님도 진실이다. 예수님도 현존하시고 성모님도 현존하신다. 그렇다면 현존하시는 성모님의 발현은 진실이며 거짓이 아니다." 나는 메주고리에 관련 책 중에서, "성모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시는 마지막 시대" 라는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5일 동안 밤과 낮을 잊고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마음 깊이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진실임을 믿었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 메주고리를 순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열심히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7일, 마침내 우리 가족은 성모님이 계시는 메주고리에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맨발로 십자가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맨발은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메주고리에에서는 태양의 기적, 치유의 기적, 회개의 기적, 불치병, 암, 마약중독 등의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등 초자연적인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당과 멀리 살던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색의 목주들이 금빛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십자가 산을 올라 사진을 찍는 것은 빼 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불교신자들도 가톨릭 신자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신부님들과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를 찾아 오고 있었습니다. 메주고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순례지였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전 세계로부터 온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진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메주고리에 성모님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가야 한다.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나 자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 산을 올라가는 동안 나는 하느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느님, 내 조국 베트남에 돌아가면 저는 당신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7월 말, 베트남의 사이공에 돌아오자 나는 후옌시 성당의 기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메주고리에 체험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점차적으로 내 체험담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회 회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회원들은 나에게 기도회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31일부터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나의 기도를 들어

36년동안 앓던 만성 질병이 치유되다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의사들도 포기한 36년 동안 앓아 오던 만성 질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입과 코에서 피가 나고 몸에 열이 나거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면 더 많은 코피를 흘렸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많은 돈을 썼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읽은 후, 나는 매일 묵주기도와 자비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날부터, 더 이상 코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만성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나는 즉시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이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과 의사들은 어떻게 내 병이 치유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한번 하느님은 진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도록 모든 사람들을 기도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다섯개의 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이웃에게도 전했습니다.

1. 매일 묵주기도 하기
2.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기
3. 1달에 1번씩 고백성사 보기
4. 매일 성경 읽기
5. 가능한 자주 영성체 하기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처음부터 '다섯개의 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기도회 회원들은 첫 단계로 매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의 편지를 성모님께 봉헌 했습니다. (매일 밤 묵주기도 10단, 서로 용서 하기 등등...). 기도회원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기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깨어진 가정들은 믿음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되찾고 화해 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에서는 메주고리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

문에 기도회를 성당 안에서 할 수 없어서 기도 회원들은 성당 밖의 칼베 힐에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비를 맞으며 묵주기도를 하는 훌륭한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매우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당신의 현존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저녁 7시이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메주고리예의 하얀 성모님상이 몇 초동안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한 기도회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성모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신부님도 성모님상이 빛이 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신부님은 그 다음 주부터 성당 안에서 기도회를 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후엔 시 성당에서 메주고리예 성모님상이 빛을 발했다는 소식은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2006년 8월 30일, 그 다음 주 기도모임에는 성당 안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서 주신 '다섯개의 돌'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표징들을 보았습니다. 하얀 색의 메주고리예 성모님상이 어떤 때는 푸른색으로 혹은 분홍색으로 변할 때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기도회 모임에 너무나 많은 은총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체 험했습니다.

이 후, 여러 달 동안 수 많은 지역의 신자들이 기도모임에 참석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먼 고장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급격히 증가하여 70명으로 시작해서 200, 500, 700, 1000명이 되더니, 1500명, 2000명, 3000명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역 정부당국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이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복 경찰들이 기도모임에 숨어들어서 기도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



성모님께서 주신 다섯개의 조약돌

되고 DVD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 매사추세츠 주 몰든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손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을 잃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느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은 이전 처럼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사업은 매우 신속하고 크게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전세계의 어떤 억만장자보다 더 부자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전 세계 모든 재산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느님을 당신 삶의 첫 자리에 모십시오!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일이 놀라게 변화될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삶, 더는 죄의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당신은 신앙의 빛으로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M**

< www.medjugormag.com에서 >

였습니다. 기도회를 막으려던 그들이 오히려 기도 모임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막으려던 공산당원 경찰 서장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가족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2006년 후에도 많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심 기도운동은 일부 성당에서 매우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비심 기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비심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자비심의 기도는 일부 성당의 소규모 그룹에서 시작되어 6년 만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통하여 자비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전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불쌍한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자비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베트남의 순례센터인 타파오, 라방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주기도,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순례객들은 기도의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는 순례객들은 매년 수천명씩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문시볼
 지도신부 : 박창득 문시볼 (뉴약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이 데레사, 최 레지나

미국	P.O. Box 843, Ridgely,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예수님께 치유시켜 달라고 말씀하세요!

2009년, 안드레아 드 루카는 '페르테스'라는 병으로 넓적다리 경부와 엉덩이뼈가 부서져 나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주고리에의 미사에 참석 중에, 그는 자신의 몸에 강한 열기를 느꼈고 집으로 돌아간 후, 일어나 걸으라는 목소리를 들은 후에 치유되었다고 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그의 치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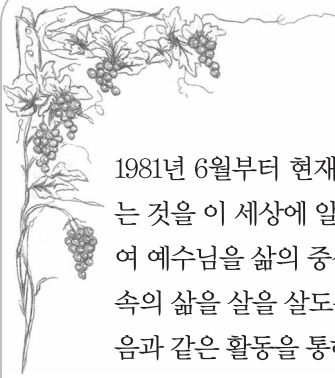


안드레아가 숙소 앞 마당에서 본 빛나는 성모님 상

21세의 안드레아 드 루카는 넓적다리 경부와 엉덩이뼈들이 부서져 나가는 페르테스라는 희귀병 환자로서 참을 수 없는 심한 고통과 함께 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지체장애인이었다. 그는 메주고리에에 오기 전 3년 동안 이탈리아의 카스텔라메어 디 스타비아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를 치료하던 네이플 대학의 정형 외상학과 교수인 아나스타시오 트리카리코 박사와, 역시 정형학과의 파스켈 기다 박사는 안드레아 드 루카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검사한 후, 그의 치유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탈리아 작가이자 저널

리스트인 파올로 브로시오는 그의 신간 '빛줄기'에서 부서져 없어져 버린 뼈가 다시 재생된 안드레아 드 루카의 치유에 대하여 전과 후의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파스켈 기다 교수는 이탈리아의 TV 방송 RAI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그가 안드레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그의 병을 치료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 안드레아 드 루카와 그의 부모는 안드레아의 치유를 청하고자 마지막 희망을 안고 메주고리를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어느 날 저녁, 묵고 있던 숙소 마당에 나갔을 때

그는 첫 사인을 보았다고 한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당에 나가 성호를 긋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있던 성모상에서 갑자기 빛이 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었지만, 저는 겁이 나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 나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정원에 나가셨을 때, 그곳에있던 성모상에서 두 줄기의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한 줄기는 가슴에서, 다른 줄기는 다리에서 나왔습니다." 안드레아 드 루카는 크로아티아 예일리 24시에서 자신이 체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하루는, 수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당신의 병을 가져가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다음날 저는 미사에 참여하였고 처음으로 저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가 온통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 루카에게 그 일이 있었던 때가 16세였다고 하며 그때는 두려움 때문에, 목발을 던져 버리지 못했으나 이탈리아로 돌아간 후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다. "메주고리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목발을 짚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어떤 목소리가 세 번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의 사도이다. 나의 빛을 입고 걸어라." 바로 그때부터 지난 삼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너무나 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안드레아 드 루카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치유에 대해 대중에게 침묵해온 것을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었어요. 이제 저는 어른이 되었고 의사들도 제가 받은 치유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번 봉헌과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3.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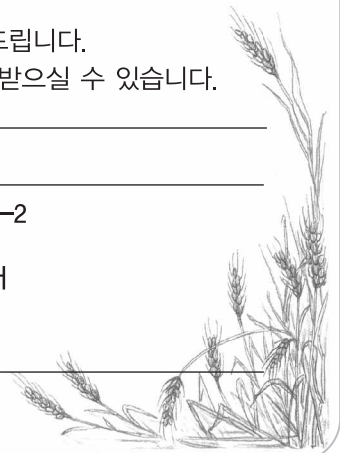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안내

미국·카나다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 농협은행
 계좌 : 351-0404-6506-03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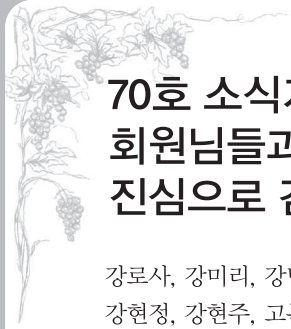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70호 소식지 발행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로사, 강미리, 강민정, 강복선, 강성주, 강순여, 강순예, 강영애, 강용자, 강제이슨,
 강현정, 강현주, 고복래, 구옥림, 권금옥, 권선화, 권오진, 권잼마, 금옥, 김건, 김건일,
 김경숙, 김경애, 김금성, 김금이, 김단심, 김테레사, 김테이비드, 김동순, 김로사,
 김마텔라, 김마드레아, 김마딜라, 김마리아, 김말가리다, 김벨라멧다, 김복용, 김사비나,
 김세리,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숙자, 김순미, 김순옥, 김순홍, 김안나, 김영숙, 김영주,
 김영화, 김영희, 김옥순, 김옥희, 김요한나, 김희주, 김원희, 김유리, 김윤석&김청, 김은미,
 김재옥, 김재자, 김정원, 김정자, 김정희, 김준순, 김주, 김지영, 김진평, 김춘자, 김해성,
 김현숙, 김혜경, 김호, 김효안, 김효정, 김훈, 김희영, 남궁리디아, 남이사벨라, 노마리아,
 노종만, 리사 레지나, 마가렛, 마리아막달레나, 명베로니카, 명울리엠타, 명주리, 문로사리아,
 문로사리오, 문혜림, 민금이, 민병덕, 민영희, 민정숙, 민프란치스코, 민헬레나, 박경, 박경규,
 박경희, 박규열, 박기애, 박난성, 박마리아, 박명원, 박명화, 박손영, 박수현, 박순덕, 박요셉,
 박연희, 박정자, 박종옥, 박혜선, 박희숙, 박희영, 반니기도회, 반진희, 방정부, 백광현, 백낙현,
 백루갈다, 백루시아, 백민현, 백옥금, 백요한, 벨라멧다, 서석래, 서영희, 서정열, 서잼마, 석순옥, 선우루카, 선우용근,
 선우유식, 선우폐기, 성정숙, 성혜경, 송경설, 송안나, 송영희, 송정순, 송종식, 송혜자, 신경자, 신테레사, 신베드로,
 신영수, 신은희, 신태남, 신태철, 신태필, 신태경, 심세실리아, 안마이클, 안은순, 안훈, 양루시아, 양에스터, 양태숙,
 엄봉화, 엄용숙, 엄토마스, 엘리사, 엄태순, 원옥순, 유광문, 유규희, 유글라라, 유바오로, 유미영, 유요한, 유인발,
 윤옥자, 윤희, 이갑희, 이경, 이경화, 이관희, 이글라라, 이난순, 이동숙, 이동우, 이루시아, 이마리아, 이명숙, 이명자,
 이명진, 이목련, 이미나, 이민재&이경성, 이민희, 이복희, 이선숙, 이선옥, 이선우, 이성숙, 이성원&양운생, 이송자,
 이송주, 이수지, 이순세, 이순세&서석래, 이안토니, 이연기, 이연희, 이영자, 이영희, 이유미, 이윤영, 이윤희, 이은,
 이은숙, 이인순, 이재기, 이재선, 이정, 이정옥, 이정은, 이정진, 이정호, 이정희, 이종천, 이준모, 이준세, 이찬기, 이창,
 이택&이정, 이헬렌, 이현구, 이혜숙, 이희운, 임마리아, 임명숙, 임성택, 임요안나, 임주자, 장봉석, 장숙영, 장영환,
 장영희, 장요셉, 장익수, 장준순, 장한순, 잔스윤숙, 전금순, 전금옥, 전마야, 전문석, 전요한, 전종래, 전찬래, 전헬레나,
 전현숙, 정글라라, 정금희, 정심디언, 정안나, 정애나, 정애한, 정옥순, 정요한, 정유정, 정재향, 정지원, 정찬래,
 정토마스, 정환철, 조동진, 조숙자, 조시남, 조시문, 조아일린, 조안나, 조창길, 조크리스티나, 조호선, 조화연, 조현자,
 조희남, 주남필, 주숙은, 주옥림, 주옥인, 주정숙, 지어거스틴&글라라, 진도미니카, 진은필, 차순구, 차스테파노,
 천모니카, 최귀희, 최그레이스, 최대명, 최테레사, 최멜리토, 최미카엘라, 최선, 최스텔라, 최아지, 최영운, 최은경,
 최인숙, 최지희, 최혜선, 최희순, 하정철, 한루시아, 한리디아, 한미경, 한숙희&한승용, 한승용, 한옥림, 한정애,
 한카롤라이나, 한혜숙, 한혜식, 함태봉, 홍복희, 홍성심, 홍연, 홍연수, 홍제시카, 홍종규, 홍주필, 황계자, 황대운,
 황동익, 황은경, 황헬렌, 황혜자, 희숙, 익명

Agather Phillips, Andrew Lee, Anna Chung, Annie Felix Jung-ja Park, Barbara Alonzo, Barney Choe, Charles J. Ernst,
 Chong Ae Lake, Chong S Arguello, Chong Suk Dardy, Chong Welch, Christina Vavis, Chung Flynn, Chung Shendelman,
 Chwi Vwga, Consaleia Taphorn, David J.&& Lisa Rigoni, Golden Soon Ham, Goldland Jewelers, Hae S. Phillips,
 Henry Yerger, Hoisoan Choi, Insuk Mullius, Jeannie Cunningham, Jewelers, joe &son cha allen, Joo D Kim, Joung Lee,
 Jung Lwasaki, Kang, Kang Mee R, , Kim Madera, Kumsun &Chaeyong yun, Kyong S. Larcenaire, lee Chung, Lee Soon,
 Lee Tak, Liane Shim Theresa, Luke Y Sunoo, Madera Kim, Mara Shendelman, Myung D. Yerger, Myung Suk Lau,
 Nam P, Nansoon S. Buffington, Ok Soon Nguyen, Paul J & Mary K Lee, Rosa Park Watson, Sang Sun Goode,
 Sangsuk Darrington, Sara Garcia, Son Cha Allen, Sook Y. Walker, Sanghee Sophia Jacobs, Suk Ja Dunnigan Catarina,
 Sunok, Sunwoo Pegi Margaret, Suok, Susie Lee, Yon Johms, Yong H Sipe, Young S.Sin, Yun Hui Beech, Yun suk Johns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5년 성지순례

2015년 성지 순례는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평화의 모후 선교회 안내 순례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항공권 구입 안내 : 201-945-4777 / CP 917-626-4314 / qpmm.org@gmail.com / www.qpmm.org

- \$1,480** 메주고리에, 사라예보, 크로아티아, 이스탄불
2015년 3월 10일 ~ 21일 (11박 12일)
- \$1,975** 메주고리에, 폴란드, 프라하, 이스탄불
2015년 4월 9일 ~ 22일 (12박 13일)
(유럽내 4번 연결 항공 포함)
- \$2,190** 하느님의 뜻 영성 제 4차 국제피정 및 메주고리에, 이태리
2014년 4월 16일 ~ 29일 (13박 14일)
지도신부 : 이범주 바오로 신부
(루이사 피카레타 영성 피정비 400유로 포함)
- \$850**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2015년 5월 11일 ~ 19일 (8박 9일)
Fr. John McFadden -
영어권 순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 \$850**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5주년 기념 순례
2015년 6월 21일 ~ 29일 (8박 9일)
- \$2,350 / \$2,610** 파티마, 루르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이태리, 스페인
2015년 10월 14일~ 26일 (12박 13일)
2015년 10월 14일~ 28일 (15박 16일)
- 문의** 제 26회 메주고리에 세계 청년대회 및 크로아티아, 이태리, 바로셀로나
2015년 7월 28일 ~ 8월 10일 (13박 14일)
Fr. Denis G. Wilde O.S.A.
영어권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 \$850** 메주고리에
2015년 11월 1일 ~9일 (8박 9일)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발행과 무료 보급 및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